

⑤ 양산 통도사 백련암(通度寺 白蓮菴)



성철 스님이 1938년 동안거를 보낼때 머물던 요사채.



성철 스님이 통도사 백련암에 머무르던 시절, 통도사는 1900년 경허 스님이 직접 통도사로 와서 선종을 떨치던 때였다. 순례단원 340여명은 백련암에서 참배를 마치고 스님이 주석하던 요사채를 둘러보며 법향을 느꼈다.

철마다 어머니 돌려보내 동안거 든 곳

백련문화재단과 불교인재원이 주최하는 '성철 스님 수행도량 순례단'이 7월 21일 다섯 번째 순례로 경남 양산 통도사를 찾았다.

통도사는 자장율사가 643년에 당나라에서 귀국할 때 가지고 온 불사리와 가사(袈裟), 그리고 대장경 400여 함(函)을 봉안하고 창건함으로써 초창 당시부터 매우 중요한 사찰로 부각됐다. 불사리와 가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대장경을 봉안한 사찰이기 때문이다.

통도사 일주문 영축산 통도사(靈鷲山 通度寺)라고 쓴 현판 좌우에는 불지종가 국지대찰(佛之宗家 國之大刹)이라는 주련이 걸려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해서 '불지종가', 나라의 으뜸가는 절이므로 '국지대찰'이라고 한다.

성철 스님은 1937년 3월 부산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받은 뒤 그해와 이듬해 동안거를 통도사 백련암에서 보냈다. 이 무렵까지도 어머니가 철마다 옷가지와 음식 등을 마련해 찾아왔으나 계속 물리쳤다고 한다.

새벽부터 서울, 대구, 부산 각지에서 버스로 달려 온 순례단 340여 명은 점심공양 후 진신사리가 모셔진 금강계단을 참배한 뒤 통도사 실법전에 앉았다.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前조계종 초대 교육원장)은 축원문을 독송한 뒤 환영사를 남겼다. 스님은 "성철 큰스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스님이 그동안 수행했던 처소를 순례하면서 스님의 자취를 느낀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며 "성철 스님은 1938년도에 통도사 백련암에서 동안거를 지냈다. 그때 당시 스님들은 염불회를 결성해 신도들에게 염불을 권장하

고 신행활동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증명법사 원택 스님은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과 함께 스님이 돌도 없는 도반사이로 공부를 했다고 전한 뒤, 성철 스님이 1982년 경봉 스님 영전에 올린 추도사를 읊었다.

"영축산 꼭대기에 외로운 달이 밝게 비치니 티끌마다 찰찰마다 빛나고 빛나는도다. 거두고 펼침이 자재로움이며! 천동 요란하고 번개치도다. 나타나고 사라짐이 뜻과 같음이며! 용은 노래하고 봉황은 춤춘다. 한 번 놀고 한 번 웃음이며! 바다도 잔잔하고 강도 맑다. 혹은 앉고 혹은 누움이며! 옥 구슬 구르고 보배 구슬 구르도다. 허허! 문득 푸르른 소나무 아래에서 길게 휘파람 부니 천문만호(千門萬戶)에 노래 소리 들린다."

원택 스님의 법문이 끝나고 순례단은 성철 스님의 법어를 독송했다.

"사바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원래가 하나요,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비선악의 분별심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바의 참모습은 수억막 년 동안 비취주는 해와 같고 티없이 맑은 창공과 같이 청정한 것인데 분별심을 일으키는 마음에서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고, 그래서 육신과 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백도 하나가 되는 융화(融和)의 중도(中道)를 바로 보고 분별의 고집을 버립시다..." <1993년 음 4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초파일법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 중에서 정리 분)

법회를 마친 순례단은 경봉 스님 열반 30주기를 맞아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개최한 '삼소굴'전을

관람한 뒤 성철 스님이 동안거를 지냈다는 백련암으로 향했다.

성철 스님이 통도사 백련암에 머무르던 시절, 통도사는 1900년 경허 스님이 직접 통도사로 와서 선종을 떨치던 때였다.

백련암의 백련선원은 1935년 개원됐다. 개원당시 석봉 스님과 16명의 스님이 정진했으며 1942년까지 정진은 계속됐다.

통도사 일주문 앞 주차장에서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 휘운암을 지나 1km정도 가면 세 갈래 길이 나온다. 서운암과 극락암 길의 중간 길로 접어들어 1km

1937년 범어사에서 비구계 받고 이듬해 동안거, 스님이 결성한 백련암 만일 염불회 명성 높다

정도 가면 백련암이 나온다. 백련암이 있는 곳은 현재 성철 스님이 머물렀던 요사채를 제외하고는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다.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백련암에 대해 설명했다. 백련암은 고려 공민왕 22년(1373년) 월하 대사가 창건하고 조선 인조 12년(1634) 현암대사가 중건했다. 백련암 큰법당을 백련사(白蓮菴)라 현액(懸額)한 것은 부처님 당시 기원정사 죽림정사에 유래하며 한 때 백련정사 만일염불회를 개최한 현액이 누각에 걸려 있었는데 통도사 성보박물관으로 내려 보냈다.

큰 법당은 숙종(1707)때 1차 중수를 하고 철종 14년(1863)에 2차 중수 해 354년차 중수를 하고 철종 14년(1863)에 2차 중수해 354년간을 내려오다가 2002년 음력 정월에 해체, 2004년 5월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입주했다. 現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이 1975년 부임해 도로, 전화, 전기를 개설했다.

현재건물은 1995년 중창불사를 시작해 큰법당, 광명전, 누각, 요사채 등으로 돼 있다. 이곳에는 역사적으로 선원, 염불당, 강원을 두루 갖춘 곳이다. 환성·경허·성철 스님 등이 남자로 수행했다. 만해 스님은 이곳에서 불교대전을 집필했고, 경운 화상은 이곳에서 정진 스님 부친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며 일자 일배(一字一拜)해 금자(金字) 법화경을 쓴 곳이다.

백련암 만일염불회는 당시 명성이 높았다. 수행인의 수도처로서 전통이 빛나는 곳이며, 누구나 이곳에 당도하면 세연을 모두 잊고 적정처에 들어온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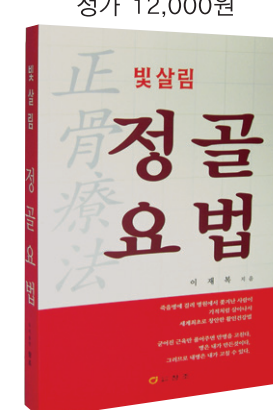
현재는 영축총림 염불당으로 천일기도를 수십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고, 매월 음초하루 법회와 지장재일 관음재일 법회 거사법회와 매월 보름에는 인등기도 법회를 하고 있다. 법회일에는 불교인문등 각종경전 교리강좌를 원산 스님이 직접하고 있다.

순례단원은 백련암에서 참배를 마치고 스님이 머물던 요사채를 둘러보며 성철 스님의 향취를 느낀 뒤 각자의 집으로 해산했다. 제6차 순례는 8월 25일 영전 은사채 운부암이다. 양산 통도사-이나는 기자



증명법사 원택 스님은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과 향곡 스님이 돌도 없는 도반사이로 공부를 했다고 전한 뒤, 성철 스님이 1982년 경봉 스님 영전에 올린 추도사를 읊었다.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책도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사은 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빛살림 척추교정운동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친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중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여년간 수십만명이 체험한 건강법을 지도 합니다. 단, 한번만 체험해 보시면 곧바로 확신이 옵니다.

이 운동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 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척추(냉척)를 쉽게 푸는 법 수
-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뚫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법 수록
- ▶ 악어가죽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통증을 뿌리 채 뽑는 법 수록
- ▶ 단침이 몽글몽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중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짙어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짙~뽑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901 소백산수련원

책신청 : (054)637-9810

정골본기(이영숙) 서울성동1가 14-35/우영빌딩4층 제210호-서울성동 0204호